



# “암·난치병, 아는 만큼 고친다”

## ‘불세출의 神醫’로 불린 인산 김일훈 선생의 ‘내 몸 다스리는 지혜’ 5월 10일(목) 유스퀘어 문화관에서 재조명

### 그곳은 난치병 환자들의 종착역

1986년, 경남 함양의 열 평 남짓한 한 허름한 초막. 하루에 적게는 100명, 보통 200~300명의 사람들이 전국 각지에서 몰려들기 시작했다. 일명 ‘지리산 도사님’을 만나기 위해서였다. 집안은 밭 다닐 틈이 없고 바깥 도로까지 사람들이 북새통을 이루었다. 그들은 대부분 암을 비롯한 각종 난치병 환자이거나 가족이었다.

병원을 전전하다가 끝내 퇴출되어 마지막 한 기닥 실오라기 같은 희망을 품고 찾아온 사람들……. 그 풍경을 보고 한 기자는 이렇게 쓰기도 했다. “그곳은 난치병 환자들의 종착역이었다.” 그 지리산 도사가 바로 인산(仁山) 김일훈(1909~1992) 선생이다.

독립운동가이자 사상가였고 《神藥》(神藥本草) 등의 대저술을 남겼으며 ‘불세출의 신의’, ‘가난한 민초들의 의황(醫皇)’으로 불린 인산 김일훈 선생. 지금 널리 통용되고 있는 ‘죽염’ ‘마늘’ ‘유황오리’ ‘홍화씨’ 등을 활용한 난치병 치료법은 모두 그에게서 나온 것이다. 올해 탄신 103주년. 그가 어떤 사람이었고 어떤 업적을 남겼는지 생전 당시 신문 잡지 등의 기사를 통해 살펴본다.

“《神藥》의 저자인 仁山 金一勳(82)은 평생을 독립운동과 한의학 연구로 일관해 온 분이다. 1909년 함남 홍원군 용운면에서 태어난 金翁은 16세때 의주에서 일본인 학생 15명을 때려눕히고 만주로 들어가 모화산 부대(대장 변창호)에 동참(……) 그러나 金翁은 독립운동을 했던 공로로 나라로부터 훈장을 받은 일도, 간판을 내걸고 한약방을 경영한 적도 없다. 해방 직후 앞다투어 권좌에 오른 동지들조차 모르게 시끄러운 서울을 떠나 지리산 자락에 묻힌 채 현대인의 각종 난치병 치료법 연구에만 몰두해온 隱者였다.”

〔한국일보〕 1990. 11. 19

“공해로 병들어 죽어가는 많은 환자들을 내평개친 채 자신의 안빈낙도만을 추구할 수 없다는 의식이 그를 그대로 내버려두지 않았다.(……) 경남 함양군 함양읍의 상죽림 마을에 자리 잡고 앉아 전국에서 소문을 듣고 찾아온 환자들을 대하는 외에 저술활동을 통해…….”

〔중앙일보〕 1990. 10

“한반도가 좁다하게 전국을 방랑하는 그는 어딜 가나 아무조건 없이 죽을직전에서 소생시켜 준다. 金翁의 이런 행각은 불교·기독교계는 물론 전국 각지의 ‘道人’들 사이에 자자하며 해박한 한학과 종교지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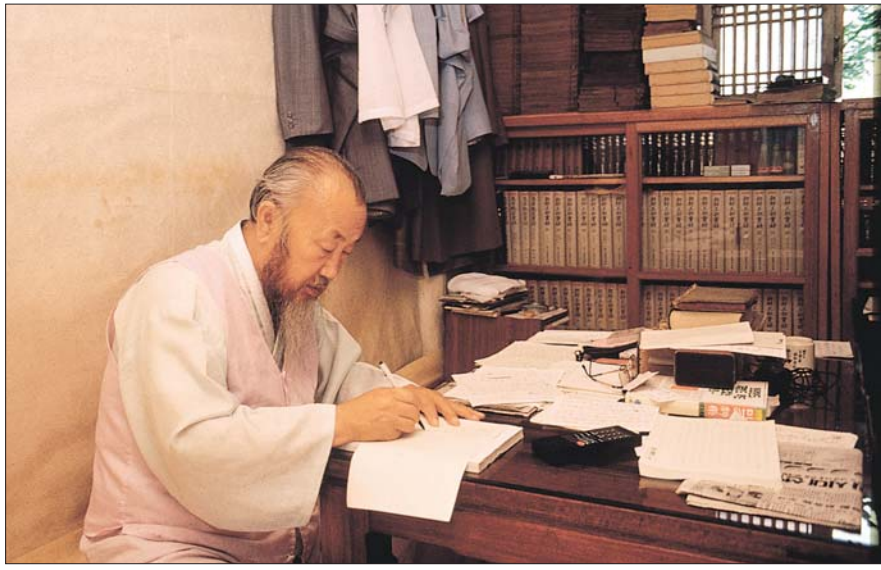
〔국민일보〕 1989. 7

“인산 김일훈 翁을 ‘이인(異人)’으로 부르게 하는 것은, 뭐니 뭐니 해도 80 가까운 나이에 변함없이 남들에게 찬양받는 ‘신비의 의술’ 때문이다.(……) 환자들은 불치병(不治病), 난치병에 걸려 이 병원 저 병원, 외국의 병원까지 돌아다니다가 ‘종착역’인 그의 초막을 두드린다.”

〔여론〕 1986년 7월호

“국내 유명병원은 물론이고 외국 병원 에까지 가서 못 고쳐 마지막 인생의 종착역에 들른 중생들의 신고(辛苦)를 쓰다듬어 주는 그를 추종자들은 인도의 기바, 중국의 화타·편작 같은 명의들의 반열에 세워 ‘민초들의 의황(醫皇)’으로 부른다.”

〔여성동아〕 1991년 4월호



독립운동가이자 민속의학의 천재였던 인산 김일훈(1909~1992) 선생의 생전 모습. 그는 아무 대가 없이 천부의 의술을 베풀었고, 정작 자신은 평생 가난하게 살다가 세상을 떠났다.

### 인생의 종착역에 들른 사람들을 대가없이 고쳐준 그는 ‘민초들의 의황(醫皇)’이었다

“아이구 말도 마이쇼, 서울·부산·강원도, 방방곡곡에서 찾아옵니다. 이 병원 저 병원, 외국 병원까지 갔어도 병을 못 고치다가 할아버지를 만나 살아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여성동아〕 1991. 4

“대륙을 질주하던 말발굽 소리는 맞은 지 오래 되고 지하에 고이 잠든 동지들은 불러 봐도 메아리 없는 오늘(……) 이제는 가고 없는 모든 분들의 넋을 모아, 그리고 살아남은 우리 모두의 합창으로 그대 이름하여 부르리라. 민초들의 의황(醫皇)이라고.”

〔독립운동가, (故)유석현 선생의 회고〕

### 인산(仁山) 김일훈(1909~1992)

타계하실 때까지 선생 곁에는 항상 환자들이 있었다. 반듯한 집 한 채 가져보지 못한 그였지만 평생 가난한 환자들을 돌보며 살았다. 가난한 사람이든 부유한 사람이든 병을 치료해 준 대가로 돈 한 톨 받지 않았으며 오로지 처방만을 일러 줄 뿐이었다. 그는 돈과 권력, 지식을 들고 찾아오는 사람들에게는 준엄한 꾸지람을 내리 바로잡고 순박한 병자들에게는 한없이 가슴 아파하며 온 정성을 다해 치료에 힘썼던 인술(仁術)의 아버지였다.

### “한 가지 약으로 천하의 병을 고치려”

인산 김일훈 선생은 말년에 경남 함양의 허름한 집에서 7년 동안 약 30여만 명의 환자들을 돌보았는가 하면 마지막 가는 길에 인류를 살리는 비밀을 털어놓겠다며 노구(老耄)를 이끌고 전국 각지를 돌며 30차례 강연회를 가졌다. 강연회장은 각종 난치병 환자와 가족들, 여러 의학자들과 의료업 종사자들, 인산의 사상을 흠모하는 이들 그리고 이미 인산의 보살핌으로 중증 질병을 고친 사람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그는 생전에 한국경제신문 고광직 부장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옛 의서인 본초(本草)는 지나치게 복잡하여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면서 평생 경험만 하다가 늙어 죽게 만들어. 그런 짓은 어릴 적에 다 치워 버려야겠다고 생각했으니, 앞으로 그런 일이 없게 하려고 해. 한 가지 약으로 천하의 병을 고칠 수 있는 법을 전해서 말아야.”

“한 가지 약으로 천하의 병을 고칠 수 있는 법(法)이 무엇일까? 선생은 지금과는 생활환경 자체가 다르고 발병양상이 같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옛 의서의 방약(方藥)에 주로 의존하고 있는 오늘의 한의학과 인체의 자연치유체계를 도외시하는 서양의학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오늘날 치병(治病)의 핵심은 ‘해독보원(解毒補元)’, 즉 몸 안에 쌓인 공해독을 비롯한 각종 독소를 제거하고 스스로를 살려낼 수 있는 원기를 회복시켜주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자신이 약속한대로 한 가지 약으로 만병을 다스리는 초월환원의 묘책을 내놓았으니 “마늘을 구워 죽염에 찍어 먹으라” “단전이나 중원에 쑥뜸을 때라” “빠에 문제가 생기면 홍화씨를 먹으라” “생강감초탕을 늘 달여 마셔서 공해독을 해독하라” 등의 제안이 바로 그것이다. 그 중심에는 마늘을 구워 죽염에 찍어 먹으라는 불멸의 지침이 있다.

### 사람 살리는 인산묘법을 한눈에! 월간 《仁山의학》

4대, 160년에 걸쳐 오직 한길을 걸어온 집안이 있습니다. 인산 김일훈 선생의 뜻을 따르는 곳 - 인산(仁山)입니다. 인산에서는 인산 선생이 밝힌 지혜를 일반인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매달 《인산의학》이라는 회원전용 잡지를 23번째 발간하고 있습니다. 월간 《인산의학》을 보시면 한국형 대체의학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인산의 각종 건강법과 체험사례 그리고 인산식 건강식품의 모든 정보를 한눈에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중원과 단전에 쑥뜸을 뜨는 방법” “마늘을 구워 죽염에 찍어 먹는 방법” 유황오리, 홍화씨, 마른명예, 시리장 등의 활용법들과 인산의학의 힘으로 난치병을 치유한 사례들이 매달 생생한 증언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또한 인산의학의 공식 필자들이 참여하여 내용 지키는 건강법을 해설하고 있습니다.

인산 탄신 103주년 기념, 강연회 참가자 회원가입 무료!

- 월간《인산의학》정기구독권 증정
- 인산제품 10% 할인특전

※인산회원 연회비 5만원  
└ (강연회 참가자 무료)  
문의 1577-9585 www.insanga.co.kr



## “내 안의 의사를 깨워라”

### 광주대학교 대체의학과 김운세 교수 특별 건강강연 및 저자사인회 고속터미널 옆 유스퀘어 문화관 동산아트홀, 5월 10일(목) 오후 2시

인산 선생의 차남이자 인산의학 계승자인 김운세 선생(인산가 회장, 광주대 대체의학과 교수) 특별 건강강연회가 이달 10일(목) 오후 2시부터 고속터미널 옆 유스퀘어 문화관 동산아트홀에서 열린다. 이번 광주강연회는 최근 출간된 김 교수의 저서 ‘내 안의 의사를 깨워라’가 지난 달 서울 강연장에서 초판 매진될 정도로 뜨거운 호응을 보임에 따라 광주 지역 인산가 회원들의 강연 요청이 쇄도했기 때문. 강연 후, 저자사인회도 있을 예정이다. 참가비는 없으며, 누구든지 신청만 하면 참가할 수 있다. 문의: 1577-9585

### 김운세 선생 무료강연회, 지금 신청하세요

- **강사**: 김운세 선생(인산의학 계승자, 인산가 회장, 광주대 대체의학과 교수)
- **일시**: 5월 10일(목) 오후 2시 ~ 4시
- **장소**: 유스퀘어 문화관 동산아트홀(서구 광천동 49-1)
- **교통편**: 터미널 앞 하차, 백화점/아파트 앞 하차  
지선(대촌69, 상무64, 지원151, 임곡89, 유덕65, 518, 1187, 송암72), 급행(순환1, 첨단09), 공항(1000) 간선(문흥48, 첨단30, 풍암16, 풍암26, 송암47, 문흥39, 임곡38, 지원25, 금호36, 봉선37)
- **참가신청**: 전화 1577\_9585(좌석 관계상 사전 참가신청자에 한해 입장 가능)  
※ 승용차의 경우, 주차시간이 오래 걸리니 되도록 대중교통편을 이용하세요.



대체의학자 靑龍山人 김운세 선생 (주)인산가 회장, 광주대학교 대체의학과 교수, 월간 《仁山의학》 발행인, 불세출의 神醫로 추앙받는 仁山 金一勳 선생(1909~1992)의 次男으로서, 선친의 독특한 의학의 맥을 이어받은 '인산의맥(仁山脈)'의 계승자. 유(儒)의 기풍에 따라 사서삼경(四書三經)을 위시하여 유불도(儒佛道)의 제경전을 두루 섭렵했다. 저서로는 《한 생각이 임을 물리친다》(동사열전(東師列傳)) (마음말에 도의 꽃 피던 날) (심산건강천지문) 《내 안의 의사를 깨워라》 등이 있다.

